

2022년 9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인공지능은 나쁜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 .....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명사를 많이 나열하지 않아요!** ..... 7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최명희 소설 둘러보기** ..... 9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뉴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개발’로** ..... 11쪽

국어로 바라보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대화? 또는 질문!** ..... 1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 43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행복과 복, 같은 듯 다른 쓰임새** ..... 19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불필요한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 23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이기영 소설 둘러보기** ..... 25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국립국어원, 2022년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 개최** ..... 27쪽

국어로 바라보기\_닭은 말, 다른 뜻  
**‘이따가’와 ‘있다가’** ..... 31쪽

국어 바라보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살아 있는 문자, 한글을 전시하는 기쁨에 관해** .....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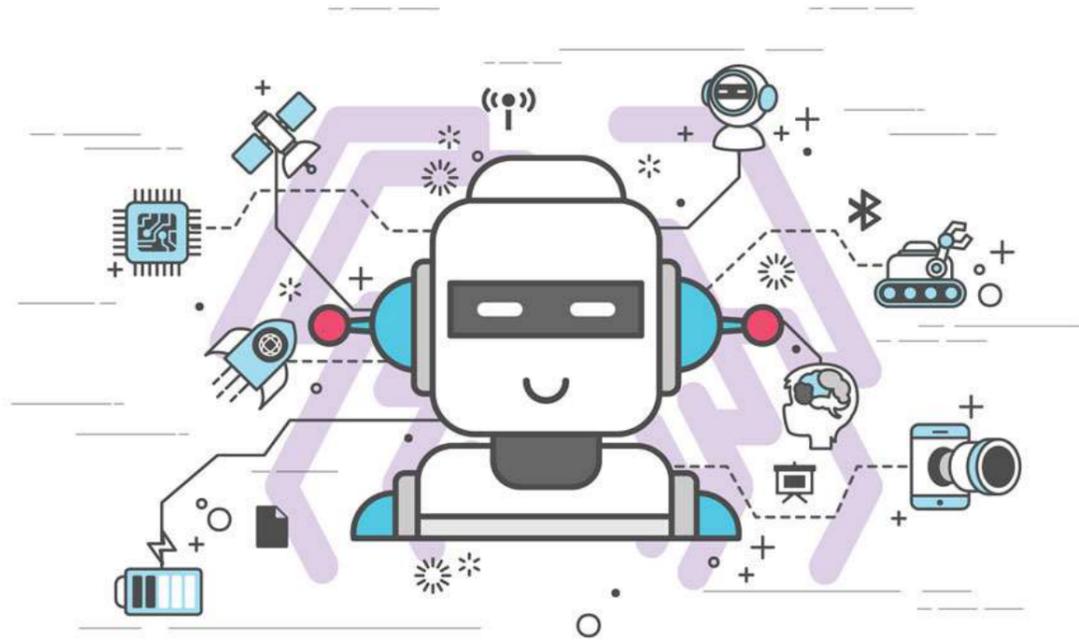
## 인공지능은 나쁜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유희정

국립국어원은 선진국과의 언어 처리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싹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용 학습 자료로서의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약 2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모두의 말뭉치(<http://corpus.korean.go.kr>)'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대량의 기초 학습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신문, 도서, 방송, 강연 자료 등 공적인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자료 외에도, 일반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자료도 함께 수집한다. 사적인 상황에서 수집된 언어 자료의 예로는 일상 대화 음성·전사 자료, 메신저 대화 자료, 글쓰기 자료,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글을 모은 웹 자료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다른 언어 자료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료를 제공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개인 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인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자료들에서의 개인 정보 비식별화는 윤리적인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1년 초에 한 인공지능 대화 모델에서 불거진 논란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에서 주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를 대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델이 학습한 자료는 개인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 자료로,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 인공지능 대화 모델은 이용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혐오, 차별적인 발언을 생성하여 대화 내용의 유해성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었다.

인공지능용 학습 자료로서의 적정성,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한 대화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면서,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대화에 포함된 일부 대화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말뭉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언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화 제공자뿐 아니라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하였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언어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생생한 대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상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범죄 모의 등 반사회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언어 연구와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비속어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포함된 일부 대화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적절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것이 개인의 사적인 언어생활 자료가 포함된 말뭉치였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메신저 말뭉치 이외에도 구어 말뭉치, 웹 말뭉치의 배포를 중단하였다. 지속적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뭉치 수집 및 구축에서의 윤리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말뭉치에 포함된 욕설 및 혐오, 차별성 발언 등 일부 부적절한 내용의 정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용 학습 자료로서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차원과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말뭉치를 별도 구축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부적절한 표현을 걸러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인공지능 학습 자료로서의 말뭉치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한 판정은 나이, 성별, 지역 등의 변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뭉치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용 학습 자료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정제를 최소화한 것이 가치가 높다. 한편, 인공지능이 논란이 되지 않는 표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나쁜 말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2021년 배포가 중단되었던 말뭉치 3종을 대상으로 사적 언어 자료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조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말뭉치 조사 결과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문서는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모두의 말뭉치 공개 문서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문서는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발언 검출을 위한 평가용 말뭉치 구축 자료로 활용되었다. 구축 결과물의 일부는 2022년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경진대회의 ‘비윤리적 문장 분류’ 과제로 공개되어 어느 인공지능 모델이 ‘비윤리적 문장’을 가장 잘 분류하는지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쁜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용 말뭉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금칙어와 같은 단어 위주로 부적절한 표현을 선별할 뿐만 아니라 맥락까지 고려하여 비윤리성을 판정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문장 다듬기

# 명사를 많이 나열하지 않아요!

국립국어원

~~금번 접수 민원 관련 적의 조치 요망~~  
 → ~~이번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 예문에는 명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명사들만 나열된 문장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조사나 접미사를 적절히 넣어 풀어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도움 찾기 행동 권장을 하는 것도~~  
 → ~~도움을 찾는 행동을 권장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 문장에서는 명사형 표현이 연이어 놓여 있습니다. 조사를 넣거나 명사형 어휘를 풀어 쓰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국립국어원

~~일괄 공사 변경과 추후 도로 굴착 공사 승인 등~~  
 → ~~일괄 공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도로 굴착~~  
 공사를 승인하는 OO광역시와 직접 협의 처리  
 → ~~직접 협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위 문장에서도 명사가 세 개 이상 잇달아 쓰였습니다. 적절하게 풀어 쓰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공언어 바로 쓰기  
 김희정, 마침표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그 서술에 놀란 등장물이 허리를 질러 **갑박** 숨을 죽인 채 머우리 들더니 이윽고 길게 숨구져 오르며 너울거린다.

<흔불> 중

지역어: **갑박** → 대응 표준어: **가득, 가득**

실패보기

'갑박'은 '가득, 가득'을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가뽕, 다뽕, 담뽕, 담선, 파뽕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기암 **들이당쟁에** 혹 무신 광밭이나 나면 아저께 하고요, 지가 이런 말쯤 다림서도 당최 송구사러와서.

<흔불> 중

지역어: **들이당쟁에** → 대응 표준어: **갑자기**

실패보기

'들이당쟁에'는 '들어서자마자'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갑자기'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읍내보다는 시골의 잘 사는 집에, **속새로** 숨겨 놓은 깔이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소문이 번지기 마련이어서.

<흔불> 중

지역어: **속새로** → 대응 표준어: **몰래**

실패보기

'속새로'는 '몰래'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주로 전북 지역에서 많이 쓰며, 채만식의 소설에서도 발견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최명희** (1947~1998) 작가는 진리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쓰러지는 빛'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2000년 육권문화운동에 추서되었으며, 대표작으로는 <흔불>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 ‘뉴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개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뉴 스페이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민간 우주 개발’을 선정했다.

‘뉴 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이르는 말로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17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뉴 스페이스’의 대체어로 ‘민간 우주 개발’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8월 19일(금)부터 25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9%가 ‘뉴 스페이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뉴 스페이스’를 ‘민간 우주 개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뉴 스페이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간 우주 개발’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8. 17.) 다듬은 말>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의미
뉴 스페이스 (new space)	민간 우주 개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을 이르는 말로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된다.
그루밍 성범죄 (grooming 性犯罪)	환심형 성범죄	피해자의 관심을 공유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



※ (참고) 코로나19 관련 쉬운 우리말 대체어

어려운 외국어	쉬운 우리말 대체어
팬데믹	(감염병) 세계적 유행
에피데믹	(감염병) 유행
글로벌 유행	이른봄 분리력
인택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엔데믹	(감염병) 주기적 유행
트윈데믹	감염병 동시 유행
폴링 검사	취합(선별) 검사
윈도 스루 검진	투명창 검진
페이스 실드	얼굴 가림막
스니즈 가드	침방울 가림막
지표 환자	첫 확진자
엔(n)차 감염	연쇄 감염, 연속 감염
드라이브스루 진료	승차 진료, 승차 검진, 차량 이동형 진료(또는 검진)

어려운 외국어	쉬운 우리말 대체어
비말	침방울
진단 키트	진단 도구(모음), 진단(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	의심 환자
트래블 배블	비대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코로나 블랙	코로나 절망
코로나 쇼크, 코로나19 쇼크	코로나 충격
부스터샷, 부스터샷	추가 접종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엔데믹 블루	일상 회복 불안
네버 코비드	코로나 비감염



# 대화? 또는 질문!

이미향 (영남대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고속철이 나오기 전까지, 기차란 대표적인 장거리 여행 수단이었다. 이용자가 비교적 긴 시간을 머무는 공간인지라, 자리에 앉으면 으레 ‘어디까지 가세요?’라며 옆 사람과 인사부터 나누곤 했다. 동행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앉아 가라며 자리를 바꿔 주는 일도 예사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문화였다. 오늘은 25년 전 기차에서 겪은 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차에 오르니 창 쪽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며 앉는데, 할머니가 물으신다.

“어디까지 가요?”  
 “조치원까지 갑니다.”  
 “조치원에는 왜 가요?”  
 “집이 청주인데요, 청주에 바로 가는 기차가 없어서요.”  
 “청주가 집인데 왜 대구서 타요?”



그 이후로도 질문은 이어졌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등등 할머니의 궁금함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 정도 질문을 받으니 슬슬 피가 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음 질문이 나올 것이니, ‘아니다, 없다’와 같이 답해야겠다는 전략을 나도 모르게 세우는 것이다. 답하기 싫은 불편함이 밀려들 즈음, 다음 역에서 다른 사람이 탔고 연이은 질문 공세는 다행히 그쳤다. 신상에 대한 이어진 질문, 이것을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경찰이 취조하듯 일방적으로 묻는 것은 오히려 심문에 가깝다.

이런 소통 방식은 구식 기차와 함께 사라졌을까? 고맥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인간관계와 정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타고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그러한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나, 이것이 선을 넘는 빌미를 제공하는 점은 생각해 볼 일이다. 상대방에게 질문으로 말을 거는 방식은 한국에서 여전히 흔하다. 이러한 대화 방식이 한국어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예) ○○ 씨, 주말에 뭐 했어요?
- 씨는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 씨, 그 모자 어디에서 샀어요?
- 씨, 요즘 한국 생활이 어때요?
- 씨, 부모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위 예는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일부로, 모두 본문 대화의 첫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친한 사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나, 맥락상 그런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심리학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탐색적 질문’이라고 부른다. 탐색적 질문은 여러 사람과 알아 가며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말이다.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학습자가 배울 대화는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예시로 채워지는데, 탐색적 질문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서 첫말이 탐색적 질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주말에 뭘 하는지, 누구 생일 파티를 가는지, 선물은 준비를 했는지, 무슨 선물을 살 것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묻고 답하기는 학습자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라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 다문화적 배려나 공감 유도, 경청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정보 탐색에 집중하는 사례이다.

누군가의 탐색적 질문에 청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응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라고 물어 온다면 ‘사과를 좋아해요.’라고 답을 해야 하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라고 물어 오면 ‘친구 집에 가요.’처럼 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자신을 선뜻 개방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인 학습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외국어를 배우러 온 교실이라 하여 사생활을 털어놓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처지를 바꿔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이 친밀도가 낮을 때, 어색한 침묵을 벗어나려는 한국인 선생님들은 흔히 ‘밥 먹었어요?’라며 시작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이 정도는 한국 문화로 보고 ‘네’라며 무심하게 답한다. 문제는 그다음에 선생님이 ‘뭐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또는 ‘누구하고 먹었어요?’와 같은 질문을 습관적으로 이어 가는 경우이다. 그 순간 타문화권 학습자들은 당황한다. 이미 그런 상황을 겪어 본 학습자는 대화를 이어 가지 않으려,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시작은 말을 쉽게 꺼내고 좋은 말을 배우려는 언어 교실에 맞지 않는다.

외국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 언어의 사용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대화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대화란 말 그대로 ‘주고받는 이야기’이고, 대화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증진이다. 상대와 상황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경청하고 지지하며 공감해 줄 대화의 적절한 선은 어디일까? 그 선을 찾아가는 일이 문화가 다른 이들이 모여 있는 한국어 교실에서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 행복과 복, 같은 듯 다른 쓰임새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대학 간판과 연봉, 그리고 좋은 집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긴다. 또 다른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며 평생을 분투한다. 인생은 ‘한 방’, 행복도 ‘한 방’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의 소원이 로또 1등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편 가족, 연인, 친구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일과 같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 이르는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에는 이처럼 정해진 답이 없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수천 개일지라도 행복이 무엇인지는 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은 즐겁거나 기뻐서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즐거움이나 기쁨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행복은 즐거움, 기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상태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삶에서 환희와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행복과 함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념인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은 운수를 가리킨다. 만약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재물 복을 타고난 것이고, 몸이 아주 건강하다면 건강 복을 타고난 것이며, 어느 곳을 가든지 음식이 풍족하다면 먹을 복을 타고난 것이다. 한마디로 복은 삶을 만족스럽고 활기차게 해 주는 상서로운 힘이다. 행복과 복은 누구나 바라는 좋은 것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인 반면 복은 객관적인 현상이다.

- ㉠ 행복을/복을 빌다.
- ㉡ 두 사람은 지금 달콤한 행복에/복에 젖어 있다.



행복을 바라는 일과 복을 바라는 일이 서로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들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다. 가령 자식의 행복을 비는 일을 생각해 보자. 이는 자식이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복을 받기를 비는 일은 자식이 출세를 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돈을 많이 벌기를 기원하는 일이다. 또한 행복은 주관적 감정 상태이므로 그 느낌에 도취될 수 있지만 복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므로 그럴 수 없다.

둘째, 행복이 마음먹기에 따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복은 생래적으로 가지는 것이거나 초월적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 ㉠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고마워 눈물이 났다.
- ㉡ 하느님께 감사하라/고마워하라.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의 비결일 수 있지만 복의 비결일 수는 없다. 복은 행복과 달리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도,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주어질 뿐이다. 따라서 새해 첫날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행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은 어색하다.

셋째, 행복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나 복은 '-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한다. 상태성이 있는 일부 명사나 어근 등에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하다'가 그러하고, 일부 명사나 어근, 부사 등에 '-되다'가 붙어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복되다'가 그러하다. '행복하다'가 즐겁거나 기뻐서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복되다'라는 복을 받거나 누리고 있어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 행복을 얘기한다. "나는 또 한 번 행복이란 포도주 한 잔, 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다 소리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것임을 깨달았다. 필요한 건 그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뿐"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행복은 내가 오롯이 느껴야만 하는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에 가깝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모두가 어느 때보다 다양한 행복의 파편을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 불필요한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국립국어원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전통 음식의 우수성 및 녹색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의 주된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불필요한 표현을 줄이면 문장의 길이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 생활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체험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을 익힘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위 문장에서 '운영하는'은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로 바른 인성 함양과 같은' 명사가 나열된 표현은 줄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콘텐츠'란 원격 교육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합니다.  
→ 전자적으로 처리한

'전자적으로 처리한'이라고만 적어도 충분하므로 '방식'이라는 말은 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국어원

더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바로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포, 마침표.

#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 이기영 소설 둘러보기 =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하느님이 비를 주실 때 어떤 **남구**만이 비를 맞고 자리라던가, 미륵동 아무개만이 비를 받아서 농살 잘 시으라던가 하는 것이 아닌 것저럼 우리네 농군이 농살 짓는 것두 이 농살 지어서 나란 걸 먹으리라 하는 건 아니더먼.

<농민>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남구		나무

**살펴보기**

'남구'는 나무를 뜻하는 충청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남기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말 마려. 아까 정터 양조소 앞에 사람이 많이 선 것 못 보았남." "아니 그럼 그제 다 지게미를 사리 온 사람들야?" 갑숙이는 한동안 무슨 수수께끼나 풀냐는 것처럼 **말꼬름이** 한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고향>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말꼬름이		물끄러미

**살펴보기**

'말꼬름이'는 우두커니 한곳만 바라보는 모양을 뜻하는 충청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물끄러미'가 있으며,  
다른 방언형으로는 '말꼬름이'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유선달은 의미 있게 어자를 마주보며 웃는다. 남술의 차는 문턱으로 **비시감치** 걸터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젠 날가롭게 사방을 둘러본다.

<봄봄>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비시감치		비스듬히

**살펴보기**

'비시감치'는 '비스듬히'를 뜻하는 충청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비섯하게'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이기영** (1895 ~ 1984) 소설가는 충청남도 아산시 출신입니다.

1924년 단편 소설 <오빠의 비밀편지>로 등단했습니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소설을 주로 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고향>, <민촌>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 국립국어원, 2022년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 개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9월 16일(금)부터 ‘인공 지능,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다’라는 주제로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인공 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http://corpus.korean.go.kr>)’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과제 자료는 9월 16일(금)에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공개하며, 10월 4일(화)부터 11월 4일(금)까지 참가 신청과 답안 접수가 진행된다. 제출된 답안의 채점 결과는 순위표에 게시되며 상위권에 오른 답안(출품작)을 검증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며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에는 국어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후원 기업 입사 지원 시 채용 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국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2022 국립국어원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올해 과제는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이다. 상품 후기와 같은 언어 자료에서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향하는 대상과 대상의 속성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판단(감성 극성) 여부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것이다.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과제 예시>

문제(입력 문장)	정답	
	개체외 속성 쌍	감성 극성
“돌때날은 미친 듯이 뿔아 뿔더니 기어가 헛돌면서 툽 소리가 나서 경악했다.”* * 2019년에 웹 게시물에서 수집한 원문	본물#동질	부정



이는 해외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연구 워크숍인 “의미 평가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Semantic Evaluation, SemEval)”의 대표적인 과제이며,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감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2021년에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번 평가 대회를 계기로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또한 이번 대회 시작에 맞추어 개체명 사전 자료 1종도 함께 공개한다.

장소원 원장은 “인공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가 한국어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언어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공 지능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다

# 2022 국립국어원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 접수 바로가기

**평가 주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공 지능의 언어 능력」

**접수 기간** 2022. 10. 4. (화) ~ 2022. 11. 4. (금)

**접수 방법**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 에서 접수

**참가 자격** 국어 정보 처리 또는 국어 인공 지능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 중복 제출은 가능하나 중복 수상은 불가함

**대상 과제**

속성 기반 감성 분석	- 인공 지능이 문장을 이해하여 작성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개체와 속성 쌍 및 극성을 추천하는 과제 - F1 점수로 전체 평가
-------------	---

**주요 일정**

일정	내용
2022. 9. 16. (금)	과제용 말뭉치(훈련, 개발, 시험용) 및 베이스라인 모델 공개
2022. 10. 4. (화) ~ 11. 4. (금)	과제 신청서 접수 및 답안 제출(리더보드 반영)
<b>2022.11월 중 상위권 참가자 출품작 검증 및 수상작 결정</b>	
2022. 11월 말	시상식

**시상/혜택**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	특별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b>국립국어원장상</b>			관련 기업 상장
	상금 100만원	상금 50만원	상금 30만원	

\* 후원 기업 지원 시 서포터즈 가점 등 채용 전형에서 우대(지원 부서 직무 등 중후 안함)  
\*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문의**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 ▶ 진행 중 과제 ▶ 문의 사항 게시판 이용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숭실대학교  
국립국어원

후원 | kt
LG전자
NAVER
NC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 '이따가'와 '있다가'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철이  
요새 돈 쓸 일이 많아 걱정이야.

영이  
걱정하지 마.  
돈은 이따가도 없다고 하잖아.

철이  
응? 이따가도 없을 거라니,  
내가 계속 돈이 없을 거란 말이야?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걱정하지 마.  
돈은 **이따가**도 없다고 하잖아.

↓

걱정하지 마.  
돈은 **있다가**도 없다고 하잖아.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말입니다. 앞선 대화에서 영희는 "돈은 **있다가**도 없다고 하잖아."와 같이 써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이따가'와 '있다가'를 잘못 써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답은 말, 다른 뜻

이제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더 궁금하다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알립니다

2022년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개	2022
국립국어원 네트워크 환경 개선 작업	2022
2022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개	2022

국립국어원

바른 예

이따가 만나자. / 아직 청소가 안 끝났으니 조금 이따가 와.  
여기에 머물 더 있다가 갈게. / 소독하는 동안 다른 곳에 있다 오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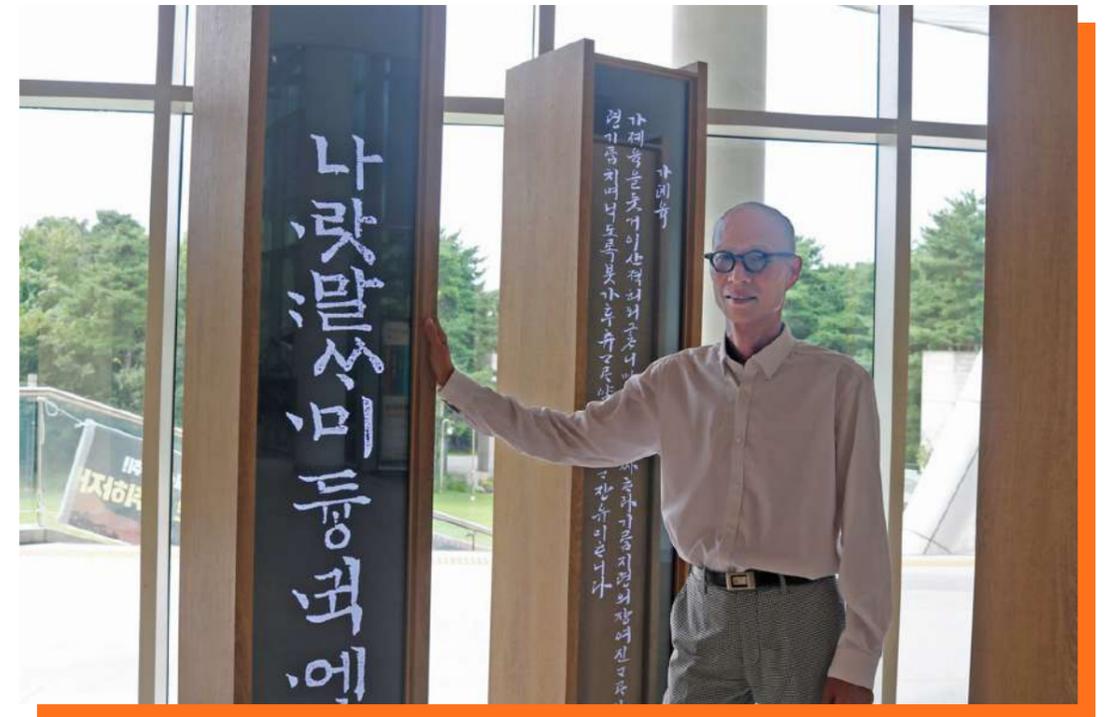
# 살아 있는 문자, 한글을 전시하는 기쁨에 관해

##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김희수



《**선표, 마침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와 함께 국립한글박물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김희수입니다. 한글박물관은 2014년 한글날 용산에서 문을 열었어요. 한글의 역사와 한글문화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연구, 전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서 누구든지 한글박물관에서 한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죠.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현재 박물관 전시운영과에서 전시운영과 자료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선표, 마침표**》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유물과 문화재를 다루는데, 한글박물관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주제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한글박물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김희수

한글은 유무형 문화재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한 소재예요. 이런 한글을 전시로 다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박물관들처럼 유물을 다루더라도 한글박물관은 유물이 가진 국어 역사적 가치를 비롯하여 서체, 한글 표기 등 한글 자체에 대해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한글 전시를 기획할 때는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 주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요. 일단 한글이라는 주제가 대중이 쉽게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많은 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살아 있는 문자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제화된 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시 또한 생동감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어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뻘하지 않았다’, ‘시대를 초월하여 소통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의견을 보내 주실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죠.

《심표, 마침표》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여 공개한 상설 전시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 눈에 띄네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전 상설 전시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김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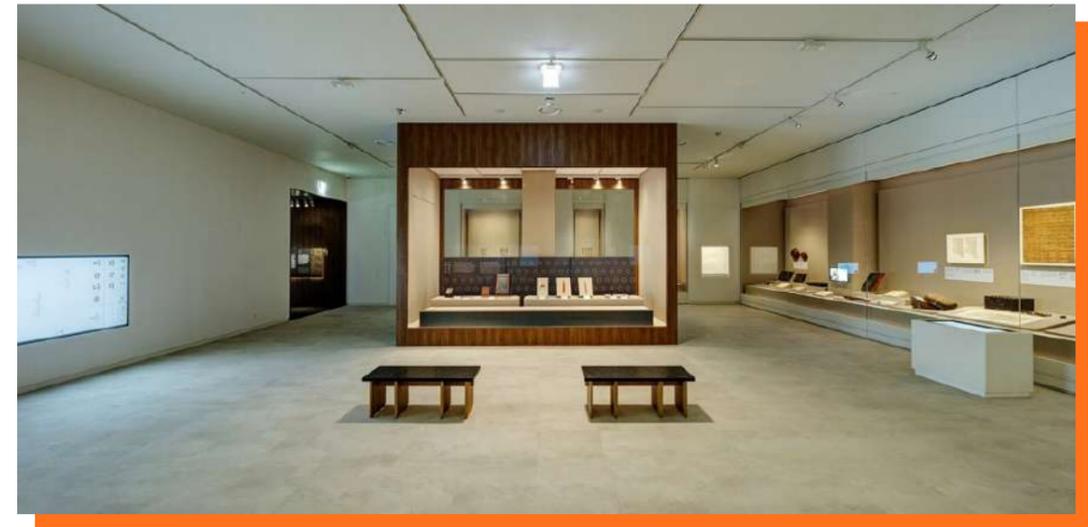
이전의 상설 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시대의 문자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한글문화를 유물 중심으로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새로운 상설 전시는 그간 한글박물관이 수집한 새로운 유물을 소개하면서 보다 실감 나고 감각적인 전시 기법을 도입했어요. 가령 쌍방향입체책이 있는데, 옛날 책을 크게 확대한 모형 책을 증강 현실을 이용해 관람객들이 넘기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죠. 동시에 실감형 영상, 투명 디스플레이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마련했어요. 아울러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읽기 어려운 옛 한글 문헌들에 대해서는 모든 전시 면을 읽기 쉬운 현대어로 풀이했고요. 여기에 유물 설명문을 자세히 덧붙여서 해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관람하기 좋도록 꾸몄습니다. 관람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의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한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에 주목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수

많은 사람이 ‘한글박물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훈민정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애석하게도 한글박물관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전시실 자체를 한 권의 『훈민정음』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훈민정음』에는 새롭게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요. 『훈민정음』의 첫머리에는 세종대왕이 쓴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나랏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새’로 시작하는 서문에는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든 배경과 그 문자로 꿈꿨던 세상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훈민정음 서문에 착안하여 세종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천년의 문자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심표, 마침표》

출품 자료들이 모두 화려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훈민정음 다양한 문화재급 한글 자료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손꼽히는 한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희수

이번 전시에는 한글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문화재급 유물을 아낌없이 선보였어요. 『유가사지론』(권20, 13~14세기), 『선종영가집언해』(1495년), 『청구영언』(1728년), 『정조어필한글편지첩』(18세기), 『곤전어필』(1794년), 말모이 원고(1910년대) 등이 대표적이죠. 이 가운데서 특히 많은 관람객이 흥미를 보이는 유물이 있는데요. 바로 정조 임금이 큰외숙모에게 보냈던 한글 편지들로 만든 『정조어필한글편지첩』입니다. 이 첩에는 정조가 열 살 이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편지 4점을 비롯해 정조가 마흔 살이 넘어 쓴 한글 편지까지 실려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 바뀐 정조의 한글 서체를 살펴볼 수 있죠. 『정조어필한글편지첩』은 진열장에 펼쳐져 있는 편지뿐만 아니라, 첩에 실린 모든 편지를 큰 영상 모니터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선표, 마침표》

관내외에서 새롭게 발견된 한글 자료들도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한글 금속 활자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상설 전시에 출품되었나요?

김희수

작년 6월 인사동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에는 한글 창제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활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어요. 여기에는 15세기에 사용된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법을 따른 활자들이 포함되었어요. 동국정운은 조선 한자음을 정리해 표준음을 정립하기 위해 1448년 간행된 음운서입니다. ‘ㅁ, ㅂ, ㅅ, ㅇ’ 등 동국정운식 표기는 인쇄본으로는 여러 책이 있지만 활자로는 전해진 것이 없었다고 해요. 또한 한자 금속활자 중 최소 6개는 1434년에 만든 ‘갑인자(甲寅字)’로 추정되는데, 세종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금속활자의 최초 실물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요.

이처럼 발굴된 모든 유물은 먼저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각각 귀속 기관을 정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직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미귀속 유물을 대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죠. 오랜 설득 끝에 문화재청과 또 발굴을 직접 수행했던 수도문물연구원 측에서 전시의 의의를 이해하고 대여를 허락했습니다. 덕분에 상설 전시가 재개되기 전에 금속활자를 빌려 올 수 있었죠.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어렵게 빌린 금속활자인 만큼 흠잡을 데 없이 전시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활자 실물을 확인하며 글자를 판독하고, 특히 동국정운식 한자음 활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신기한 한글을 보고 관람객들이 재밌어하시더라고요.

《선표, 마침표》

전시에 출품된 한글 편지와 한글 청원문, 한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조선어 철자기 등을 통해서 한글이 만들어 낸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희수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소개된 유물 가운데 ‘정소사 원정’이라는 청원문이 있어요. 19세기 말 충청도 청양에 살던 과부 정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 양반을 고발하기 위해 어사또에게 한글로 올린 것이죠. 정 씨는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셋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았는데, 어느 날 충청도 홍주에 살던 숙질 한송여와 한근여가 사람을 시켜 정 씨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지만 이 일로 정 씨의 시댁 어른들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죠. 수치스러움에 목숨을 끊으려던 정 씨는 마침 공주 지역으로 행차한 어사또에게 한글로 청원문을 적어 올렸습니다. 청원문의 앞면에는 정 씨가 한글로 적은 사연이 적혀 있고, 그 뒷면에는 납치를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명령한 처결문이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참담하고 억울한 일이 한글을 통해 고발되고 오늘날까지 알려진 거죠. 이처럼 한글과 조상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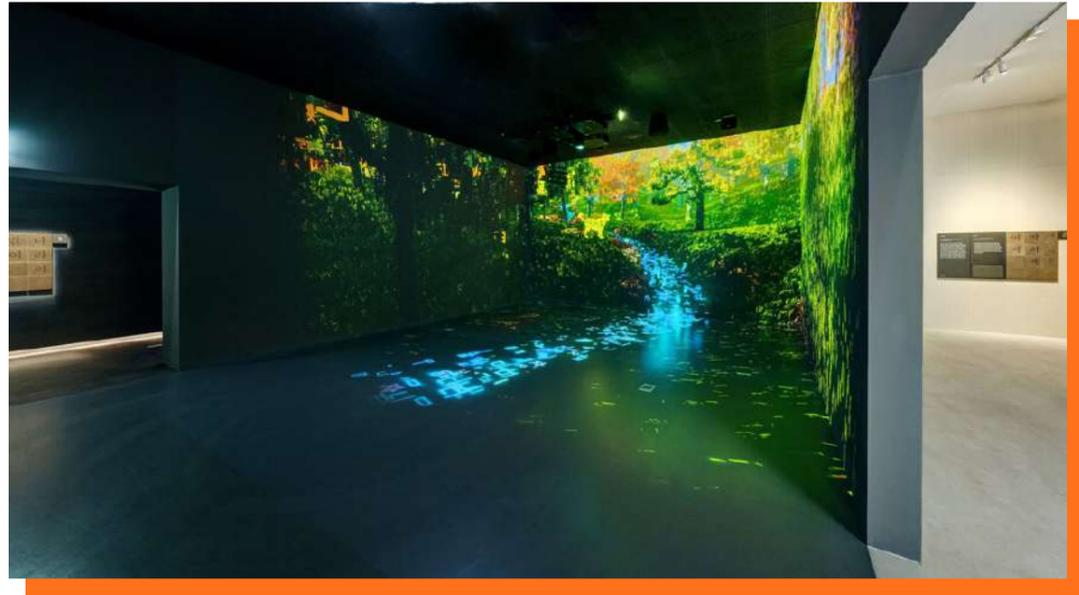
《선표, 마침표》

상설 전시를 찾은 일반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김희수

전시장에 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체험 요소가 섞여 있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일단 전시장 도입부에 자리한 『훈민정음』 아크릴 모형을 꼽을 수 있어요. 훈민정음 33장(66면) 원형의 이미지를 아크릴 모형으로 만들어 선형적으로 나열했는데, 어두운 공간에서 오로지 『훈민정음』만이 빛나고 있죠. ‘소리가 있으나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우리나라 오랜 역사에 어둠을 밝히셨도다’라는 『훈민정음』 합자해의 글귀와 함께 배치했는데 언론에 여러 번 보도 되었고 관람객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 실감형 영상 공간입니다. 『훈민정음』에는 세종과 함께했던 신하 정인지의 글이 남아 있는데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글자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중국의 글자를 빌려 쓰고 있어 마치 네모난 막대를 둥근 구멍에 넣는 것과 같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착안해서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전시장에 오시면 꼭 관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쉽표, 마침표**》 이 밖에 관람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건범** 한글박물관에서는 <화요한글문화강좌>라는 강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3시에 한글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죠. 다가오는 10월에는 한글날 특집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치맥, 먹방, 대박’ 등 우리에게 친숙한 신조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글박물관은 어린이들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한글놀이터’ 체험 전시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한글과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쉽표, 마침표**》 국립한글박물관의 상설, 기획 전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건범** 전시는 해당 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글박물관 전시를 돌아보면, 상설 전시의 경우에는 한글의 역사와 그 발전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진중하게 소개해 왔어요. 기획 전시의 경우에는 주로 근현대 한글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시도해 왔죠. 앞으로도 한글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문화에 대한 가치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여 나갈 계획입니다.



《**쉽표, 마침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글 실험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떤 프로젝트 인가요?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전시 행사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건범** 올해 한글날에는 한글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 문화사, 박물관 소장품, 한글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글 디자인은 한글 실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글이 가진 디자인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콘텐츠인 만큼 디자이너, 아티스트와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한글 실험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동경 문화원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문화원, 프랑스 파리문화원, 인천국제공항,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등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전시를 개최해 왔어요. ‘한글의 원형’, ‘한글의 소리’, ‘한글의 형태’라는 주제로 각각 1~3회를 진행했고, 올해 10월에는 4회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근대 한글 연구소’라는 제목으로 근대 시기에 나타난 한글의 변화, 이를테면 맞춤법, 띄어쓰기, 가로쓰기 등의 변화상을 비롯하여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낯선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될 예정이에요. 동시에 헝가리 문화원에서 1~3회의 전시 작품들을 재구성한 전시를 마찬가지로 10월에 개막할 예정이고요. 한글박물관은 이처럼 문자를 다루는 박물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한글문화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테니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대 한글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THE 4<sup>TH</sup>  
HANGEUL DESIGN  
PROJECT

REINTERPRETING  
HANGEUL  
IN THE MODERN ERA

국립한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NATIONAL HANGEUL MUSEUM  
SPECIAL EXHIBITION HALL, 3F

국립한글박물관  
National Hangeul Museum

2022.10.07. - 2023.01.29.

연구소

글/사진: 강은혜

# 우리말 풀기

## 문제 1

각 분야에서 [ 내로라하는 / 내노라하는 ]  
사람들이 모였다.

정답 찾기 Q

## 문제 2

삼촌은 왕년에 [ 한가락 / 한가닥 ] 했다고 한다.

정답 찾기 Q

## 문제 3

그는 노래를 시원하게  
[ 불러 젖혔다 / 불러 제꼈다 ].

정답 찾기 Q

## 문제 4

세수하면서 [ 눈곱 / 눈꼽 ] 을 닦았다.

정답 찾기 Q

## 문제 5

[ 쟁여 놓은 / 쟁겨 놓은 ] 겉보리 가마가  
씩기 시작했다.

정답 찾기 Q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 응모 기간

2022. 9. 6.~2022. 9. 19.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10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2년 8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이\*수(3097)

안\*경(0036)

김\*주(2540)

전\*지(6836)

김\*무(2438)

김\*우(8769)

김\*인(0977)

이\*관(4110)

조\*울(8825)

# 우리말 풀기

## 문제 1

학생회장은 안건을 회의에 [ 부쳐 / 붙여 ]  
진행하기로 했다.

정답 찾기 Q

## 문제 2

[ 마춤 / 맞춤 ] 정장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답 찾기 Q

## 문제 3

그럼 [ 염치 불구하고 / 염치 불구하고 ]  
신세를 지겠습니다.

정답 찾기 Q

## 문제 4

김 선배는 산 정상에 깃발을 [ 꽂았다 / 꽂았다 ].

정답 찾기 Q

## 문제 5

[ 눈치껏 / 눈치껏 ] 대답해라.

정답 찾기 Q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 응모 기간

2022. 9. 20.~2022. 10. 3.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10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2년 8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이\*수(3097)

안\*경(0036)

김\*주(2540)

전\*지(6836)

김\*무(2438)

김\*우(8769)

김\*인(0977)

이\*관(4110)

조\*울(8825)